

# 소득 수준 따라 기혼자 비율 격차 12배

고소득 남성의 결혼한 비율이 저소득 층보다 12배 많은가 하면 전체 분만 건수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회양극화가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양극화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혼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출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한층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6일 '뉴시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펴낸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수준 소득 1분위 남성의 기혼자 비율은 6.9%로 가장 낮고 10분위는 82.5%로 가장 높았다. 12배에 가까운 격차다. 이런 결과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20~30대 임금노동자들의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올라갈수록 혼인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7분위까지는 49.0%로 기혼자가 절반이 채 안 됐다. 반면 8분위부터는 67.3%로 18.3% 포인트 급상승하면서 3분의 2가 결혼을 했다.

여성은 1분위 42.3%, 2분위 43.3%에서 4분위 28.1%까지 낮아졌다가 9분

위 들어 68.3%로 3분의 2 수준을 넘어섰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다. 남성에 비해 격차는 2.7배로 작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는 비슷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출산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분만건수'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고소득층 비중은 확대됐다. 8분위가 12.41%에서 14.13%, 9분위가 7.81%에서 9.72%, 10분위가 4.96%에서 5.33%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2007년 7.67%에서 지난해 4.99%까지 감소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양극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마저 제약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혼인·출산율 제고 정책은 청년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전시 한국 대장이 연합사 지휘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방부 영내로 옮기기로 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두기로 했다. 전작권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겸하지 않고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헨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연합사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과 미래연합사령관에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연합사 평택 이전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가는 섹터에서 일각에선 한국군의 주도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국방당국은 2017년 10월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에 합의하고, 양해각서

(MOU)까지 맺은 바 있다.

두 장관은 또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이 겸하지 않고,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통합방위사령관을 맡아 군사외교까지 하게 된다"며 "이런 임무를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 직위가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를 미래연합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예정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한 연습부터 미래연합사령부 지휘체제를 반영해 한국군 대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